



忠北大同門會報

眞理
正義
開拓

발행인 : 김주섭 편집인 : 박노균 발행소 : 충북대학교총동문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12 전화 : 043-261-3121 FAX : 043-272-3122 인쇄처 : 중부출판사

제12회 충북대학교총동문체육대회 성료



주 | 요 | 내 | 용 | 목 | 차

- 인사말 / 총동문회장 2
- 신임 총동문회장에게 듣는다 2
- 동문회 소식 - 총동문회 행사 3
- 신하동문회 소식 4
- 화제의 동문 / 신대회 편사 9
- 학내소식 10
- 노무상식 11
- 힘차게 도약하는 충북대학교 12
- 장학금소개 13
- 동문단상 / 김내수 14
- 시 / 도중환 14
- 동문단상 / 전제상 15
- 회비 납부자 명단 16
- 제24대 총동문회 임원명부 17

10월 17일 일요일 모교 대운동장에서 제12회 충북대학교 총동문체육대회가 15개 팀 1,200여 동문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에 김주섭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총동문회 임원과 안길삼 대학원장, 임병덕 학생입학처장, 류태기 청주시교육장, 노병호 교수 협의회장, 김백규 직원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배구, 족구, 줄다리기, 800m계주 경기를 가졌다. 특별이벤트로 어린이 사생대회, 가족게임, 닭싸움, 디스코경연대회도 열려 체육대회를 더욱 알차게 만들었다. 경기 결과 종합우승은 흥덕연구소(회장 최현호)에 돌아갔고, 종합준우승 토목학회(회장 이재기, 종합3위는 충북대부설중고(회장 이창희)가 각각 차지하였다. 어린이 사생대회 대상은 임하은(토목학회), 닭싸움 1위 신호섭(경찰청) 동문, 디스코경연대회 대상 김진수 동문 부인 정선영 수자원공사, 최고인기상 이동섭 동문 부인 흥진숙(경찰청)

남이 차지하였고, 경품추첨에서 최고의 대상29인치 평면TV)은 최미현(도로공사)동문, 은상(대형병장고)은 조남인동문(경매회)이 행운을 잡았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충북대학교, 충북대부설중고, 법원·검찰청, 경찰청, 청원군청, 농업기반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협동조합, 삼화전기, 개신민우회, 개신상공인회, 흥덕연구소, 경매회, 토목학회가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었다.

●경품찬조 : 신방용 총장, 김석현 사무국장, 연흥철(농회63), 김운규(가정64), 조항훈(가정64), 안영학(연초69), 김상필(토목70), 정봉의(축산73), 과소신(토목74), 김원식(토목75), 박경국(농경77), 정창환(경영77), 김요식(화공78), 심두진(경영80), 김사석(체육81), 최현호(법학81), 박종서(토목82), 이우호(토목82), 황재봉(농회82), 이강일(체육84) 이성남(임학87), LG건설동문, SK건설동문 참가팀 3점씩 (3면에 계속)

인사말



김주섭 총동문회장

존경하는 충북대학교 8만여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부터 제가 충북대학교 제24대 총동문회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중책을 맡아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동문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강신우 전임 총동문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 모교 충북대학교는 중부권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 이미 자리를 굳혔으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거점대학으로 주목받고 있음은 물론,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중심대학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문들은 '모교의 발전이 우리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모교의 무궁한 발전에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중부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총동문회의 역할 또한 실로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지방화, 분권화 흐름에 발맞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동문들의 참여도가 한층 증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 참신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도 우리 총동문회의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남아 권의 물류산업 중심지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의료산업단지 등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 산업단지들이 우리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점 또한 우리 총동문회의 활성화와 역할 분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역사와 8만여 동문을 자랑하는 우리 모교 충북대학교에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는 우리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중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 동문회관 건립 추진

둘째, 동문 상호간 교류 증진을 위한 동문회 홍보 활동

셋째, 동문회기금 확충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성실하게 추진되어 감으로써 우리 총동문회가 활성화되고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우리 총동문회가 명실 공히 모교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업에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월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적 변혁기를 맞이하여 우리 동문들 또한 많은 고통을 하나하나 극복하여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일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우리 충북대학교 8만여 동문 여러분 모두에게 더 많은 행운과 발전의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동문회장 김 주 섭



신임 총동문회장에게 듣는다 - 김주섭 회장

매년 어김없이 취업 시즌이 다가온다. 매년 대학에서는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의 길을 찾아 해낸다. 그 중 자신의 길을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보이지 않는 미래는 두려움이나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그 누가 말했든가. 취업이 얼마 남지 않은 취업준비생들의 머릿속은 많은 생각들로 복잡하긴 할 것이다.

당신도 지금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가? 그렇다면 이번 호는 (주)기화건설 대표이사이재현 총동문회 김주섭 회장을 만나보자.

함께 걱정하는 동문회가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학생들도 동문회를 모체로 하여 상호교류하며 활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동문회로 연락을 주면 관련된 학과의 동문들이 어느 분야에 진출해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락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사라져가는 인간미

“요즘은 일기예보 맞추는 것보다 경기예측이 더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이렇듯 경기가 어려워지니 정이 점점 메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개인주의 성향만 강해져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저는 기술 이전에 인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인간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김 회장은 봉사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7년째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생활도움을 주는 모임’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출소자들은 사회로 돌아와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주변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고,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또 다시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우선 순위 정해놓기, 시시각각 기록하기, 시간관념은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 이것들은 평생을 두고 살아온 김 회장의 신조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마는 것이니까요.”

많은 일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단연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김 회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답답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편안한 동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한다.

“갈수록 개인주의 성향만 강해져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저는 기술 이전에 인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인간성은 돈을 살 수 없는 것이니까요.”

1. '이끌어주는 사람'

충북대학교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 해답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실현해 가는 동문에서 찾을 수가 있었다. 충북대학교를 이끌어가는 제2의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었다.

총동문회 김주섭 회장은 “과거에는 충북대라는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충북대를 모르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것은 모두 '동문'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라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짓는다. “총동문회 동문들의 근황을 파악해서 교류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문회에는 8만여 명의 동문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회사에 공석이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전공학과 교수님들과 연락을 하여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애교심을 가지고 잊지 않고 동문을 이끌어주는 모습은 저를 흐뭇하게 합니다. 지금은 많은 동문들이 대부분 각자의 직장단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동문을 개개인이 사회에서도 자기 몫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 학교의 위상이 더욱더 올라가는 것이죠.”

2. 힘들게 걸어온 길

“저는 토목공학과 70학번이고 현재 (주)기화건설

대표이사로서 있습니다. 많은 공사현장, 중등교사 및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해보았습니다. 동문에 대한 애착이 생긴 것은 기업에 막 입사를 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출신이 하나도 없는 회사에서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문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상의도 하고 조언도 해 줄 누군가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홀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검정고시를 치른 것과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산지식을 전달받는 것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결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그래서 저는 동문들이 많이 찾아오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문회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졸업생들의 참여도입니다. 솔직히 졸업하게 되면 학교를 잊는 것이 보통이니까요. 그래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개별적으로 열리는 소규모 동문 모임을 활성화하고 동문 상호간에 더욱더 많은 교류를 위해 동문회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기금 모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점사항은 '동문 1인당 학생 한 명 운동'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졸업한 동문 한 명이 졸업한 한 명씩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웃음) 제 욕심인 면도 있지만 말로만 '동문'이 아니라 저는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에 의의를 두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동문회 소식

총동문회 행사

(1면에 이어 계속)

- 찬조금 : 신방용 총장, 김주섭 총동문회장, 임병덕처장, 교직자동문회, 농협충대지점, 강신우(농학61), 노재섭(약학61), 류태기(체육61), 유우웅(체육61), 이창호(인학61), 안병호(인학63), 연광석(농공64), 김수봉(농학67), 이학수(연초68), 석영선(연초68), 박재관(농학69), 김태훈(화공70), 유인호(영교70), 이중근(체육70), 손영철(과화71), 신계종(토목71), 박정희(영교72), 변근원(농공72), 김명수(체육73), 박노균(국어73), 조승영(토목73), 하수용(토목73), 김덕구(토목74), 채명륜(공업74), 이명원(토목76), 조완영(수학77), 김길하(농생79), 황영호(행정80), 감사석(체육81), 유흥열(토목81), 박명규(중문82), 황운서(경제82), 강성화(전기83), 신희섭(경영84), 김홍득(행정84), 이재기(대학원), 김민호(산업석), 김종복(산업석), 연영민(산업석), 정내현(산업석).
- 협찬물품 : 신민철(토목81), 임원 모자(400개), 박석순(행정고, 수건1,000개), 삼성물산건설(주)봉문, 수건 240개)



제50차 정기총회



지난 3월 20일 오후 4시 청주관광호텔에서 제50차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강신우 총동문회장과 신방용 모교 총장을 비롯한 2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모교와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에 대한 공로패 및 모교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에 대한 축하 수여식과 2003년도 사업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심 의, 임원선출,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한편 임원선출에서 제24대 총동문회장에 김주섭(토목70) 동문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으며, 감사에 연흥철(농학63), 조완영(수학77) 동문이 선출되었다. 김주섭 총동문회장은 덕성초, 청주상고, 토목공학과를 나와 세광중 교사, (주)삼이, (주)한보 등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에서 현장소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주)기화건설 대표이사이며, 대한토목학회 충북지회장, 덕성초 동문회장, 한국지반환경학회 부회장, 토목공학과 동문회장 등 각종 사회활동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앞으로 총동문회 활성화와 발전에 8만여 동문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공로패 수상동문 : 안영학(연초69) 농협동문회장, 서정설(토목70) 한국도로공사동문회장, 신민철(토목81) 개인상공인회장
- 축하패 수상동문 : 유명호(약학61) 증평군수, 이왕영(원예78) 제1회충북비이오농업인대상 수상자, 정은자(원예85) 기능올림픽금메달수상자, 김문석(회계90)제38회공인회계사, 최영진(의학93) 전문의시험 외과부문 전국수석, 최나현(식품지원96) 제9회지방고시 합격

제4회 총동문 골프대회 개최



6월 16일 수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청주 그랜드C.C.에서 31초 124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총동문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신방용 모교 총장, 정범모, 이택원, 이상호 전임총장과 교직원도 함께 참석하였고, 오후 2시부터 클럽하우스 2층 식당에서 시상식과 만찬을 하면서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동문간 친목과 우의를 다졌으며, 모교 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와 동문 참여를 촉구하는 신방용 총장의 특강

도 있었다.

- 골프대회 협찬 및 찬조자 : 김주섭 총동문회장, 신방용 총장, 안재경(약학72), 하수용(토목73), 이상범(토목76), 연제문(토목74), 이명원(토목76), 김요식(화공78), 정인철(토목74), 김진상(토목79), 김형택(토목79), 이인구(토목79), 조찬희(토목79), 감사석(체육80), 박종서(토목80), 손인석(경영80), 김공섭(경제82), 조성복(인학82), 윤대환(토목84), 이강일(체육84), 권민안(체육85), 권소진(산업석), 김민호(산업석), 김종복(산업석), 연영민(산업석), 이상철(산업석), 정내현(산업석)

2004 상암이사회의

지난 4월 23일 오후 6시 30분 개신문화관 1층 회의실에서 1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총동문회 상암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강신우 전임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김주섭 총동문회장의 인사, 임원 소개,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보고, 기타 동문회발전을 위한 토의가 있었다. 김주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10만 동문들의 주역인 임원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동문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문회의 활성화 및 기금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문 언론인 초청간담회



5월 25일 오후 6시 30분 모교 본관9층 청동명원에서 동문 언론인 초청간담회를 신방용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김주섭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충북대학병원 사무국장, 민경택(화공68) 충청일보 논실실장, 청주 MBC 박민순 보도국장(경영78)을 비롯한 20여 언론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의 발전과 언론동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주섭 총동문회장은 "충북대 출신 기자들과 모교가 상호 협조해 충북대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으며, 참석자들은 동문회 활성화, 동문회관 건립, 모교 발전기금 모금 등에 뜻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신규 임용 동문교수와 간담회

9월 8일 총동문회에서는 2004년 9월 1일자로 모교에 신규 임용된 동문교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방용 총장, 임병덕 학생입학처장, 김석현 사무국장, 류태기 청주시교육청 교육장, 임창재 중등교육과장, 윤병선 충북대부설중학교장, 황오연 충북대부설고등학교장, 광정수 흥덕고등학교장, 김현준 충북대제직동문회장 등이 참석하여 신규 임용교수에 대한 환영의 말과 모교 발전에 대한 당부를 하였다.

성명	학과 학번	소속	연락처
홍장익	전산통계 84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261-2261
권순동	경영학과 87	경영대학 경영학부	261-2343
김미혜	수학과 88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261-3270
서재원	전자공학 91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261-3268
홍승화	의학과 94	의과대학 의학과	269-6059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10월 4일 모교 체육관에서 제85회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 결단식에 김주섭 총동문회장이 참석하여 선수단을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롤러스케이팅, 레슬링, 연식정구장을 찾아 선전하는 동문 선수 및 임원을 격려하였다.



경찰청동문 간담회

11월 12일 무교동일사에서 지방경찰청동문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방용 총장, 김주섭 총동문회장, 김태훈 총동문회부회장, 류길영 사무처장과 지방경찰청의 윤하용 정보과장, 신현욱 정보2계장, 장정동 서부서경비교통과장, 이상일 진천경찰서정보과장, 이동섭 강력계장, 김철문 마약수사대장, 신효섭 고속도로순찰대장 등이 참석하여 김주섭 회장과 신방용 총장의 모교 인사발 윤하용 정보과장의 답사 순으로 화기에애한 가운데 오찬을 겸하여 진행되었다. (연락처 : 신효섭(형정88) 017-774-6806)

산하동문회 소식

교직자동문체육대회

6월 13일 충북대부설중·고에서 교직자동문회(회장 류태기) 체육대회가 열렸다. 3,300여명의 동문 가족들이 각 학교 현장에서 국가百年之大計를 실현하고 있다. 학과 대항이었던 이날 체육대회에는 600여명의 많은 동문들이 각 학과의 명예를 걸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는 신방용 총장님, 김주섭 총동문회장, 김천호 교육감이 참석하여 이 대회를 더욱 빛내주었다. 입장상은 수학교육과에 20만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배구 우승



은 체육교육과, 준우승은 과학교육과, 테니스 우승은 과학교육과, 준우승은 체육교육과가 차지하였다. 족구 우승은 체육교육과, 준우승은 영어교육과에서, 여자 탁구는 수학교육과, 준우승은 국어교육과에서 차지하였다.

각 종목의 우승 상금은 20만원, 준우승은 10만원, 3등은 5만원씩 지급되었다. 이렇게 성황리에 동문체육대회를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충북대학교 교육자동문들의 애씀은 열정과 관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던 한국 축구가 4강에 오르듯, 이 대회도 앞으로는 일취월장하여 많은 교육자동문들의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연락처 : 236-9064)

충북대 재직동문회 추계 개강모임

9월 20일 오후 7시 충북대학교 재직동문회 추계 개강모임이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100여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병현(체육63) 회장의 인사와 김주섭 총동문회장의 격려사, 신입회원 9명(권순동(경영87), 홍승화(의학92), 홍장의(컴퓨터과학84), 김미혜(수학88), 서재원(전자공91), 정태진(사학97), 이혜령(독문99), 정운희(전집컴00), 민명기(경정보92), 이경국(경제95)에 대한 환영회가 있었으며, 근속회원에 대한 축하가 있었다. 근속30주년 : 노재섭, 김진한, 영광식, 신주식동문. 20주년 : 은광식, 임병철, 이상태, 임원정동문. 10주년 : 이철원, 이종연, 김진식, 조민기, 유정우동문.



농협동문회 체육대회

7월 4일 모교 대잔디밭에서 농협재직동문회(회장 안영학)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는 태풍 민들레의 영향으로 비가 내려서 동문 가족계임 중심으로 경연대회를 열어 행사가 진행되었다(연락처 : 충무 민관기 011-459-4160)

농업기반공사 동문회 정기총회

4월 3일 오후 6시 가평동 백재호텔에서 농업기반공사 동문회(회장 김경환) 정기총회가 동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승진한 동문에 대한 축하와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신임 회장에선 충북본부장으로 취임한 김상필(토목60) 동문이 선출되었다.



국어국문학과 동문회

10월 10일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회장 김희수81) 동문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가 모교 소운동장에서 6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연락처 : 261-2090)

중어중문학과 동문회

10월 24일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동문회 정기총회와 체육대회가 100여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총회에선 임원 개편이 있었는데 회장에 어경용(86)동문이 선출되었으며, 오후에는 체육대회를 통해 동문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행사를 가졌다.(연락처 : 261-2102)

사학과 동문회

11월 6일 인문대학 사학과동문회 및 체육대회가 모교 소운동장에서 열렸다.(연락처 : 261-2156)

철학과 동문회

11월 13일 인문대학 철학과동문회(회장 우환식82)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가 열렸다(연락처 : 261-2147)

행정학과 동문회

11월 7일 행정학과동문회(회장 김현수80) 체육대회가 모교 농대앞 잔디광장에서 1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연락처 : 261-2196)

화학학과 동문회

10월 17일 자연대학 화학과동문회(회장 변우철79) 체육대회가 1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저녁만찬에서는 화학과장학기금 1억원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연락처 : 261-2279)

국제경영학과 동문회

10월 31일 경영대학 국제경영학과(무역학과)(회장 이승수82) 동문회 체육대회가 12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소운동장에서 열렸다(연락처 : 261-2339)

화학공학과 동문회

10월 17일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동문회 정기총회와 체육대회가 열렸다. 공대 합동강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개편이 있었는데 동문회장에 공과대학 학장인 김광렬동문이 선출되었으며, 44동 옆 광장에서 84학번(서범석)이 주관하여 동문가족계임 및 장기자랑이 열렸다.(연락처 : 261-2370)



재료공학과 동문회

10월 17일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동문회 정기총회와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선 2005년도 학과 창립30주년 행사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동문회장에 모교 충무과 인사계장인 임병철(75) 동문이 선출되었다.(연락처 : 261-2411)

도시공학과 동문회

10월 30일 공과대학 도시공학과동문회(회장 임원욱 88) 체육대회가 모교 소운동장에서 100여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연락처 : 261-2493)

축산학과 동문회

10월 31일 농과대학 축산학과동문회가 68, 88학번의 주관하에 열렸다. 이날 합동강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회장 이흥(63, (주)원전키모스 청주대리점 대표), 부회장 장국원(69) 동문이 선출되었으며, 오후에는 농대 잔디광장에서 동문체육대회를 가졌다(연락처 : 261-2551)

농업기계공학과 동문회

11월 7일 농과대학 농업기계공학과동문회(회장 이대용81)가 농대잔디광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연락처 : 261-2579)

농생물학과 동문회

11월 6일 농과대학 농생물학과동문회(회장 황태구81) 정기총회가 5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가화한정사에서 열렸다(연락처 : 261-2552)

국어교육과 동문회

10월 23일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동문회가 청주여중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회장에 안내중학교장인 연순동 동문, 사무국장에는 보덕중학교에 근무하는 이상화 동문이 선출되었으며, 배구, 테니스, 탁구경기를 통해 동문간에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연락처 : 542-7782)

영어교육과 동문회

8월 15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동문회(회장 박정희72)가 충북대부설중고에서 200여 동문이 참석하여 배구, 테니스 경기를 하였고, 아울러 승진한 동문에 대한 축하와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연락처 : 오창택 232-9390)

수학교육과 동문회

11월 20일과 21일 수학교육과동문회(회장 한동환)가 대전 임해수련원에서 1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로 열렸다.(연락처 : 조삼현83 833-9292, 016-759-5340)

과학교육과 동문회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동문회(회장 손영철)는 지난 10월 24일(일) 오전 10시 충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 중·고등학교 강당에서 2004년 동문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6회(75학번) 동문들의 주관으로 치러졌으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장, 충북대학교 교직자동문

충북대학교 교육자 동문 동정(교장급) 2004. 9. 1일자

구분	성명	학과 학번	임용사항	전직
전직	임장재	농학 64	청주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백운중학교 교장
	신경휴	농화 66	내수중학교 교장	청원교육청교육과장
	강상무	영어 71	용문중학교 교장	제천여중 교감
승진	김병동	체육 64	주덕고등학교 교장	서원중학교 교감
	김성용	체육 72	제천동중학교 교장	남성중학교 교감
	정가흠	농공 68	봉양중학교 교장	연풍중학교 교감
	전철순	농화 65	감물중학교 교장	북대중학교 교감
	조성준	수교 71	예성여중학교 교장	괴산중학교 교감
	조한성	체육 72	제천중학교 교장	경덕중학교 교감
	최재상	수교 70	충주중앙중학교 교장	옥천여중 교감
	홍순규	수교 71	영춘중학교 교장	청주여중 교감
전보	김홍식	국교 72	증평중학교 교장	충주예성여중 교장
	김영호	체육 66	제천여고교 교장	제천동중 교장
	유세정	농공 63	보은지영고교 교장	가곡중학교 교장
	전태선	농학 64	이월중학교 교장	영춘중학교 교장
	조항훈	가정 64	용암중학교 교장	충북대부설고 교장
	윤병선	축산 66	충북대부설중학교 교장	옥천교육청교육과장

충북대학교 교육자 동문 동정(교감급) 2004. 9. 1일자

구분	성명	학과 학번	임용사항	전직
전직	신우인	수교 73	서원중학교 교감	충북교육청 장학사
	오종덕	영교 72	안내중학교 교감	청주교육청 장학사
	신경진	공업 74	청주여자중학교 교감	도교육청 장학사
	이평복	국어 73	수곡중학교 교감	충북교육청 장학사
승진	윤병진	축산 64	청주중앙여자중학교 교감	송변중학교 교감
	이종근	수교 71	충주여고 교감	청산고 교감
	이철수	미술 75	도교육청 장학사	도교육청 장학사
	김영옥	수교 72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	도교육청 장학사
	이달원	국어 76	도교육청 장학사	옥천교육청 장학사
	윤인중	수교 80	교육과학연구원 장학사	영동교육청 장학사
	곽노선	가정 76	청주교육청 장학사	진천교육청 장학사
	김홍선	체육 75	청원교육청 장학사	학생생활수련원 연구사
	이난숙	수교 73	영동교육청 장학사	청주농업고 교사
	이법모	과학 83	진천교육청 장학사	음성고등학교 교사
전보	권태일	체육 73	제천상업고 교감	매포중학교 교사
	김종신	수교 74	연풍중학교 교감	내토중 교사
	김현필	체육 70	보은정보고 교감	중인여고 교사
	연남용	과학 74	제천디지털고 교감	가경중학교 교사
	오윤석	수교 72	광혜원중학교 교감	청운중 교사
	이봉훈	체육 71	청산고 교감	주성고 교사
	이재철	국어 76	괴산고 교감	충북예술고 교사
	홍익선	체육 71	증평공고 교감	증평중 교사
	홍호중	공업 74	충주공고 교감	부강공고 교사

회장,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장 등이 참석하여 격려하였으며 약 180여명의 동문이 참여하였다.

개회식에 이어 기별로 배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의 경기가 있었으며, 여자 동문들의 탁구 경기도 열려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좋은 자리가 되었다. 체육대회 후 12월말경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농화학과 동문회

5월 23일 농대 합동강의실에서 농화학과동문회(회장 박광순) 총회가 동문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총회 후에 동문 선배배간 체육대회 및 다과회를 가졌다.(연락처 : 261-2564)

체육과 동문의 밤

10월 7일 오후 6시 체육과동문의 밤 행사에 명암타워에서 2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제85회 전국체전에 참여한 동문을 환영하고 체육과 발전 및 동문활동을 축하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행사로 유승연(주성대학 기획실장) 주관기 회장의 대회사와 유무용(체육고교장) 동문회장의 환영사, 류태기 청주시 교육청의 축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임 이기석동문 회장, 홍석영총무와 2003년도 체육대회 주관기 회장 이철우, 총무 신상호 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2부 만찬에 이어 진행된 장기자랑에서는 대전지역 강형천(대전북고교장), 허순혁(전 속리중교장), 안광운(충주

사회교육과 동문회

10월 3일 사범대학 사회교육과동문회가 합동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회장에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사명기(76) 동문, 총무에 김용태(83) 동문이 선출되었다.(연락처 : 224-1136)

연초학과 동문회

5월 16일 농대 합동강의실에서 연초학과동문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는데 신임 회장에는 연초교육원에 근무하는 학번 김응근(70) 동문이 선출되었다.(연락처 : 234-4415, 011-489-3883)

대 학생처장), 변재경(모교 체육과 교수) 동문 등이 노래 솜씨를 자랑하는 등 모처럼 전국에서 동문 선후배들이 모여 화목하고 웃음이 넘치는 행사가 되었다. (연락처 : 김진균84 011-468-4576)



법과대학 동문체육대회

11월 27일 법과대학동문회(회장: 김수갑80) 체육대회가 소운동장에서 2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김수갑 동문회장의 인사, 송종준 법과대학장의 축사, 김윤구 명예교수에 선물 증정식에 이어 학번단 위별로 족구, 배구, 축구경기를 하였다. (연락처 : 261-2620)



산업안전공학과 20주년 행사

5월 1일 개신문화관에서 산업안전공학과 창립 20주년 행사를 이내원(86) 동문 회장을 비롯한 동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연락처 : 261-2457)

환경공학과 20주년 행사

10월 28일~30일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창립 20주년 행사를 가졌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취업에 관한 선배들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동문회(회장 신필식 84)에서는 기념식수, 오후에는 탈마당에서 20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통해 학과 창립 축하와 동문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미술과동문회 30주년 기념 작품전시회

11월 20~25일 미술과 30주년 기념 작품전시회가 예술의 전당 전시관에 열렸

다. 20일 오후 5시에 열린 작품전시회에서는 김주섭 총동문회장 노영민 국회의원, 오정자 인문대학장, 김수현 명예교수, 김정희 동문회장, 류경원 학과장을 비롯한 교수, 동문, 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동문작품전, 졸업·재학생작품전이 있었으며, 오후 7시 리호관광호텔에서 미술인의 밤, 21일에는 청주실내체육관에서 동문 선후배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30주년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하였다.(연락처 : 261-2750)



27회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동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 행사일시 : 2004년 12월 4일(토) 저녁 6시
- 행사장소 :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 4층 연회장
- 행사내용 :
 1. 회칙개정 건 회장임기조정 및 항목 변경)
 2. 회장 및 감사인준 (회장 74학번 송석철동문, 감사 78학번 이재경동문, 82학번 이봉지동문)
 3. 공로패 전달식(기술사패, 학위패, 교수임용동문, 법인설립동문등)



123ROTC 전국 종합 최우수학군단 선정

2004년도 학생중앙군사학교 문무대에 실시한 하계 훈련에서 모교 123ROTC학군단이 전국 종합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되었으며, 개인 성적에서도 4학년 최형정(경영학과) 전국 1위, 3학년 박종진(생화학과) 생도가 3위에 입상하였다.

개신상공인회 중국여행

개신상공인회가 창립 이래 첫 해외 나드리로 3박 4일간 중국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항일독립운동의 본산인 임시정부청사, 중국 10대절경인 서호유람선관광, 소림사에 버금가는 염은사, 중국 4대 정원 중 하나인 쑤정원 등을 관광하였고, 특히 상해의 거대한 빌딩숲이 1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중국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중국의 멋진 경관보다 회원 모두가 함께 식사하고, 술마시고, 쇼핑하고 잡지리를 같이하는 것만으로도 회원간의 친밀감과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수 있는 기회였다.



동 정

▲ 송석우(축산59) 동문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

7월 1일 총동문회 송석우 고문이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로 연임되었다. (연락처 : 397-5037, 011-891-6532)

▲ 이문희(농학65) 동문 농촌진흥청 차장

8월 20일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장였던 이문희 동문이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부임하였다. 1970년 작물시험장 농업연구사로 공직을 시작하여 34년 동안 국제미작연구소 선임과학자, 일본 농업기술연구소 및 생물자원연구소 선임과학자, 작물시험장 수도재배과장, 작물과 학원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국내 벼재배 생리 분야의 연구와 품종개발 및 임포항상, 잡초방제, 과중방업 등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그동안 연구논문 120여 편으로 우리나라 농업연구를 한 단계 높이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연락처 : 031299-2200)

▲ 김상필(토목70) 동문 농업기반공사 충북본부장

7월 5일 김상필 동문이 농업기반공사 충북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김 동문은 현재 분회 부회장이며, 농업기반공사 재직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연락처 : 290-3301)

▲ 사정필(토목70) 동문 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10월 14일 사정필 동문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에 부임하였다. (연락처 : 대전 동구 용전동 173-1 042)670-3400, 011-237-0468)

▲ 김용은(과학72) 동문 자연대학학 취임

10월 1일 모교 자연대학 물리학과 교수인 김용은 동문이 자연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61-2230)

▲ 변근원(농공72) 동문 충청리뷰 대표이사

5월 1일 중견 언론인 변근원 동문이 충청리뷰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86-0040, 011466-5165)

▲ 김명수(체육73) 동문 청주시생활체육협회 회장

3월 31일 일산프라자에서 김명수 동문이 청주시 생활체육협회의 회장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본 회부회장으로 우 명성철(گذ우) 대표이사로서 현재 충청북도 정구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연락처 : 223-4204, 019-465-7000)

▲ 서정설(토목73) 동문 대전·당진사업소장

8월 9일 한국도로공사 대전·당진사업소장으로 서정설 동문이 취임하였다. (연락처 : 041)851-2200)

▲ 신우철(농경73) 동문 한국일보 감사실장 취임

4월 1일자로 신우철 동문이 한국일보 감사실장에 취임했다. 신 동문은 1980년 한국일보에 입사하여 자재부장, 계리부장, 자금부장, 경리부장, 광고부국장, 감사실부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자회사인 서울경제신문, 한국종합미디어 감사도 맡고 있다. (연락처 : 723-9988, 011-9078-1400)

▲ 이종현(영교73) 동문 군산대학교 인문대학장

10월 8일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이종환 교수가 인문대학장에 취임하였다. 이 동문은 모교 자연대학 체육학과 변경재 교수의 부군이다. (연락처 : 011-670-1714)

▲ 변장섭(임학74) 동문 청원군의회의장

7월 12일 청원군의의회 4대 후반기 의장에 변장섭 동문이 선출되었다. 변 동문은 청원군 내수읍에서 군 의원으로 재선되었으며,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청원군 의회에결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연락처 : 214-0030, 011-461-2233)

▲ 장현규(농화74) 동문 (주)롯데홈·롯데우유 김천공장장 취임

2월 1일 장현규동문이 (주)롯데홈·롯데

데우유 김천공장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054)439-2510, 010-4808-3536)

◆ 방진기(농학75) 동문 목포시협장



7월 5일 수원 농진진흥청에 근무했던 방진기 동문이 작물과학원 목포시험장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061)453-2592, 017-357-2592,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293-5)

◆ 변재경(체육75) 동문 3740지구 1지역 대표



7월 1일자로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1지역대표로 모교 지연대학 체육학과 교수인 변재경 동문이 취임하였다. (연락처 : 261-2772, 011-9734-9123)

◆ 조원영(수학77) 동문 기숙사시감장취임



5월 21일 본회 감사이며 수학교육과 교수인 조원영동문이 기숙사 사감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61-2925)

◆ 반재홍(행정78) 동문 울량·사천동장



7월 19일 반재홍 동문이 울량·사천동장에 부임하였다. 반 동문은 그동안 청주시 비서실장, 우암어린이회관장, 수곡1동장을 역임하였다. (연락처 : 229-3602, 011-498-2711)

◆ 안상로(토목78) 동문 국토관리청 도로계

회과장

10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안상로 동문이 5급 승진하였다. (연락처 : 011-462-2154)

◆ 임병덕(역사78) 동문 모교 학생입학처장



5월 1일 모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인 임병덕 동문이 학생입학처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61-2004)

◆ 송태영(행정79) 동문 한나라당 충북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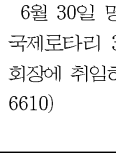
6월 21일 송태영 동문이 한나라당 충북 사무처장에 취임하였다. 송 동문은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사무처협의회 공동대표, 미래연대 운영위원, 행정수도이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연락처 : 235-0001, 011-9753-9811)

◆ 장덕수(농기79) 동문 충북소주 대표이사



10월 11일 장덕수동문이 (주)충북소주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연락처:내수읍 우산리503-7, 219-5111, 011-461-4676)

◆ 이면재(약학80) 동문 청주로타리클럽 회장



6월 30일 명암타워에서 이면재동문이 국제로타리 3740지구 청주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011-463-6610)

◆ 지용익(경영80) 동문 중부매일신문 편집국장



11월 1일 중부매일신문 편집부국장였던 지용익 동문이 편집국장으로 승진 취임하였다. (연락처 : 011-459-0151)

◆ 송태호(농경81) 동문 청주삼백리답사대 대장

홍덕구 사창동에서 송칼리현상소를 운영하는 송태호 동문이 '청주삼백리답사대'를 만들어 답사대장을 맡았다. 송동문은 청주시의 경계선 120km를 매주 산행하면서 지역의 역사, 문화, 지리, 유례를 소개하고, 주요 시설물도 돌아보면서 애항심을 키우면서 건강을 다져 많은 동호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또한 방학기간에는 청주인근 9개 대학의 순례행사도 추진중이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행사도 매월 추진할 계획이다. (연락처 : 011-9841-2021)

◆ 장선배(경제81) 동문 김종율 국회의원 보좌관

6월 1일 전 충청일보 경제부 기자였던 장선배 동문이 괴산·음성·진천·증평 지역 열린우리당 소속 김종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부임하였다. (연락처 :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439호, 016-405-4925)

◆ 최현호(법학81) 동문 지민련 충북도지부위원장



10월 9일 자유민주연합 홍덕지구당 위원장인 최현호 동문이 충청북도지부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 269-0202)

◆ 황재봉(농학82) 동문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원장



7월 9일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황재봉 동문이 운영총무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황 동문은 현재 성화-개신-죽림동시의원으로 LG지판기(주)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연락처 : 266-5578, 011-463-1541)

◆ 이광형(축산82) 동문 동양일보 편집국장



10월 29일 동양일보 취재부장였던 이광형 동문이 편집국장 직무대리로 승진하였다. (연락처 : 011-459-5392)

◆ 이광희(농생82) 동문 이근식 국회의원 보좌관

6월 1일 이광희 동문이 전 행정자치부장관였던 열린우리당 이근식(송파병)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부임하였다. (연락처 :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822호, 018-386-2851)

◆ 이장섭(국문82) 동문 노영민 국회의원 보좌관

6월 1일 이장섭 동문이 열린우리당 노영민(홍덕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부임하였다. (연락처 :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7호, 016-757-1442)

[동문회비 납부안내]

은행에 가실 때 잊지 말고 동문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회비, 장학기금)를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로입금

동문회보에 동봉된 지로를 이용합니다. (용지에 자세한 인적사항을 적어 보내 주시면 동문 찾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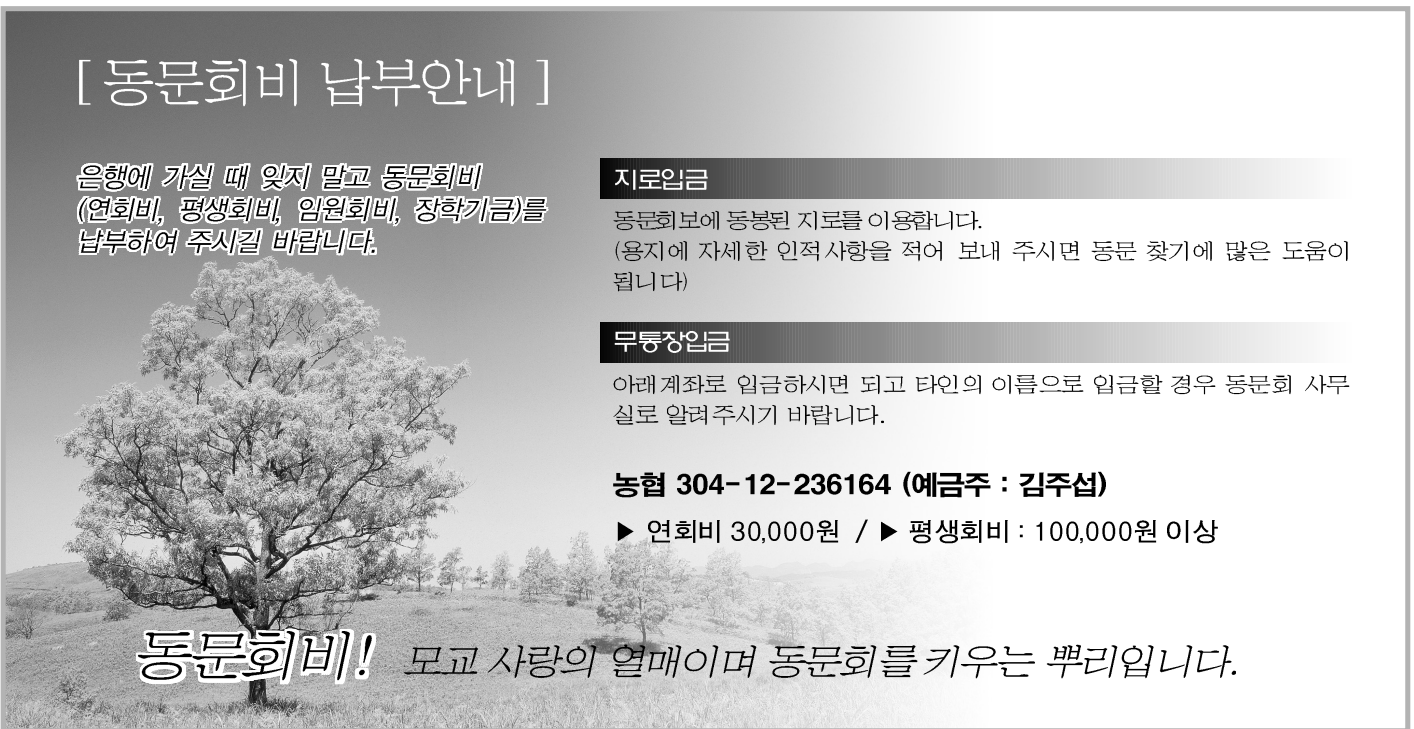
무통장입금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고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할 경우 동문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04-12-236164 (예금주 : 김주섭)

▶ 연회비 30,000원 / ▶ 평생회비 : 100,000원 이상

동문회비! 모교 사랑의 열매이며 동문회를 키우는 뿌리입니다.



◆ 김은영(정85) 동문 북텍시스주립대학 조교수



9월 1일자로 김은영 동문이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 School of Merchandising and Hospitality Management 조교수(Assistant Professor)로 부임하였다. 김 동문은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의생활전공가정학석사,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패션마케팅전공(이학박사)을 하였다.

◆ 이대선(경영86) 동문 서재관 국회의원 보좌관

6월 1일 전 충청일보 기자였던 이대선 동문이 열린우리당 서재관(재천·단양)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부임하였다. (연락처: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의회관 821호, 011-491-8373)

◆ 김민호(신원석) 동문 청주시 시민후원회 회장



오는 10월 열리는 제85회 전국체전을 위한 '청주시 시민후원회가 결성(주)원 건설 김민호 동문이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연락처: 221-3100, 011-461-4870)

◆ 이화중(경원최7기) 동문 청주무심토타 리클럽 회장



6월 22일 초정스파텔에서 (주)하나엔지니어링 대표인 이화중 동문이 국제로타리 3740지구 청주무심로타리클럽 회장에 취임하였다. (연락처: 011-484-0311)

◆ 조선호(행원 187기) 동문 복지환경국장

7월 1일 청주시 기획감사과장였던 조선호 동문이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서 부임하였다. (연락처: 220-6022)

◆ 권병홍(행원 187기) 동문 의회사무국장

7월 1일 청주시 사회과장였던 권병홍 동문이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부임하였다. (연락처: 220-6620)

◆ 신왕섭(행원 187기) 동문 시기확행정국장

7월 1일 청주시 재정경제국장인 신왕섭 동문이 기획행정국장으로서 전보되었다. (연락처: 220-6020)

◆ 김명지(행원 187기) 동문 충북 라이온스 총재



7월 16일 명암타워에서 낙원택시 대표이사인 김명자 동문이 국제라이온스 355-F 충북 총재에 취임

하였다. (연락처: 011-463-4361)

◆ 고규강(교원석99) 동문 도교육위 후보기 의장

9월 2일 제4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후보기 의장에 고규강 동문이 취임하였다.

○ 개업 ○

◆ 김요식(화공78) 동문 선프리자 컨벤션 센터 개업



6월 18일 오전 11시에 상당구 용정동 순환도로변에 컨벤션센터를 개업하였다. 각종 회의 및 세미나·동참회 등 각종 모임과 약혼식, 결혼식, 돌, 회갑연 등 다양한 연회장을 준비하였다. (연락처: 297-6700, 011-469-0639)

◆ 윤정훈(법학80) 동문 법무사 개업



청주지방법원에 근무했던 윤정훈 동문이 3월 2일 수곡동 95-8새마을회관 3층에 법무사 사무실을 개소하였다. (연락처: 288-0086/7, 011-482-4440)

◆ 손희원(행원 115) 동문 (주)대한ENG 개업

6월 11일 손희원 동문이 영운동과출소 앞에 IG에어컨 설계시공전문회사인 (주)대한ENG를 개업하였다. (연락처: 224-9191, 019-469-1004)

○ 수상 ○

◆ 임철의(경영80) 동문 전지협 제1회 자랑스런 기자상

6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열린 전국지역신문협회(전지협)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현재 충청리뷰 편집국장인 임철의 동문이 제1회 자랑스런 기자상을 수상하였다. (연락처: 286-0040, 019-302-9458)

◆ 박흥찬(생물83) 동문 중소기업인 선정

6월 30일 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 벤처기업인 (주)시그마정보기술의 박흥찬 대표가 충북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6월의 우수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박 동문은 지난 1월 전자철관시스템인 애니클래스를 개발하여 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신소프트웨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락처: 273-8388, 011-492-6709)

◆ 최관영(경영91) 동문 전국증권사지점 수익률 대회 우승



1999년 2월 졸업과 동시에 현대증권에 입사하여 현재 신탄진지점에 근무하는 최관영 동문이 슬

론·머니투데이 주최 전국 증권사지점 수익률대회 5회 우승 및 전국 최조 주간 BEST지점 5회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연락처: 042)935-9112, 016-344-4123)

◆ 박 일(체육01) 동문 국제대학레슬링대회 우승

7월 3일 제15회 추계대학 레슬링대회 겸 국제대학레슬링 오픈대회에서 체육학과 4년 박 일 동문이 66kg급 결승에서 후배인 3학년 강신국을 업어치기 기술을 앞세워 2대0으로 제압하고 우승하였다.

◆ 연영만(신업석03) 동문 충북건설인상

11월 12일 모교 대학본부 3층 대강연장에서 열린 제4회 충북건설인상 시상식에서 경영·관리부문 수상자로 인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인 연영만 동문이 수상하였다. (연락처: 213-0707, 011-461-5991)

○ 출간 ○

◆ 김동범(행정77) 동문 「소개마케팅」 출간

5월 1일 김동범 동문이 지난 20여년의 현장 영업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마케팅, 점포경영, 세일즈, 리크루팅, 교육훈련 관련 솔루션을 우리 영업현실에 맞게 독창적으로 제시한 「1사람이 50건의 계약을 낚는 소개마케팅」을 출간하였다. 김 동문은 현재 보험사랑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으며 감성마케팅 기획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연락처: 019-244-0628)

◆ 신태하(약학79) 동문 「아하! 그렇구나!」 출간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인 신태하 동문이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상식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아하! 그렇구나! - 생활속의 건강지침서(한양출판사)」를 펴냈다. 신 동문은 이 책에서 약물의 건강학과 오·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전통약초 처방, 과일 등 먹을거리에 대한 지식, 운동과 응급처치요령 등을 실었으며, 2001년 중앙일보·행정자치부 주최 '청백봉사상' 본상을 수상했으며, 8월 26일 모교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락처: 220-5522)

◆ 정문섭(무역79) 동문 「우연한 성공은 없다」 출간

4월 30일 오후 3시 하이닉스 문화센터 아트홀에서 21세기를 이끈 지역 리더들의 이야기를 담은 「우연한 성공은 없다」 출간 기념회를 가졌다. 정 문섭은 현재 중부매일신문사 육천 주재기자로 재직 중이며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일선 현장을 누비고 다니며 만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훈적인 내용으로 담아 독자를 위한 대중화를 시도한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으며, 아들이 역경을 딛고 일어난 생생한 성공사례를 본인의 구술형식을 빌어 교훈 위주의 자서전 형태로 담아냈다. (연락처: 011-464-5001)

○ 합격 ○

◆ 김남섭(경영87) 동문 제39회세무사 합격

(연락처: 011-9843-7923)

◆ 성유현(사법90) 동문 국제변호사 합격

(연락처: 010-6484-3466)

◆ 이효경(경영95) 동문 제40회공인회계사 합격

(연락처: 019-580-4713)

○ 전시 ○

◆ 박필현(미술80) 동문 작품전시회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박필현 동문이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박 동문은 현재 분당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술협회, 춘추회, 한국화여성작가회, 동방예술연구회원으로 강릉대학, 충북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연락처: 031)703-2931, 019-288-2931)



화제의 동문



청주지법 신대희 판사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대라는 이름의 제약으로, 학점, 토익 점수 등에 대한 이유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 비극적으로만 보고 멈춰서 있지 마시고 정진하세요”

지난 2월 3일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법학과 94학번인 신대희 동문을 만나보았다.

◎ 법조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때 한창 톨스토이의 소설에 빠져 있었거든요. 특히 「부활」이 제 삶에 끼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그 책에 나타난 법률가의 역할은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던 정의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직업으로 비쳐졌고, 저도 그와 같은 일을 통해 저의 인생을 실현하고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처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 나만의 공부법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꼭 실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시험 날짜에 맞추어 일년, 한달, 하루의 계획을 세웠고 몇 번을 볼 것인지 하루에 얼마만큼의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 두었습니다. 매일매일 체조를 하면서 건강에 유의했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다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법대에 들어와서 법을 공부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체계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힘들다고 꿈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 눈은 책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 연수원 생활에 대해

연수원에서는 사법시험을 통해 습득한 실체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만 해오던 체계 사회생활의 일부였던 이 시기는 약간의 괴리감을 가져왔던 시기였습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사이에서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온 정의가 일반적인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체계,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았으니까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아무리 약자라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은 그를 보호해줄 수가 없거든요. 법정은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유익한 곳이지만 때론 냉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인간적인 공간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인간의 감성이 존중되는 법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존재하는 곳이고 너무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지요. 급변하는 시대에 비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미미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의지가 되었지만요.

연수원 시절에 처음으로 변호를 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40대 남자의 절도사건이었어요. 법정에서 처음 서던 그때의 떨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매우 보람 있게 느껴졌습니다.



◎ '법'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은 다양한 측면을 지닌 것 같습니다. 법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탐구영역이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학문분야도 마찬가지로겠지만요. 또한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행동이 법에 어떻게 적용되어 어떠한 결론이 나느냐 하는 점이 제가 법을 공부하면서 흥미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제 능력만 허락한다면 후배들을 모두 만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비단 법학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뛰어나서 판사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대라는 이름의 제약으로, 학점, 토익 등에 대한 이유로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 비극적으로만 보고 멈춰서 있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세요. 넘어졌다고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니까요. 시행착오를 두려워 마시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대학시절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에 대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사회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기성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갖가지 구조와 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틀을 깰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과 동일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세요. 힘든 순간도 있을 것이고 아무도, 심지어는 자신조차도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배움의 길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예비판사로서 2년의 과정을 마친 후에 정식판사로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습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예비판사로서 판사가 지녀야 할 지식과 자질을 열심히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균형 감각을 지닌 판사가 되고 싶어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의 배경과 각 당사자의 입장을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검토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의라는 이념을 잊지 않는 법의 중립성을 지키는 책임감을 지닌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람이 되자'라는 저의 작은 소망을 언제까지나 지켜가려 합니다. 다른 목적이나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일을 하면 그 자체로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듯이 그 사람의 배경, 전적을 보며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만을 보며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학내소식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 6과제 선정 -전국 대학 중 1위-

모교는 지난 6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에 총 6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전국 대학 가운데 최다로 1위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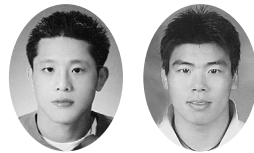
국가균형발전 전략차원에서 실시하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 누리사업)에 지난 4월 총 7개의 과제를 신청한 모교는 전국에서 신청한 총 454건의 사업 중 선정된 111건 중형 1개를 제외한 총 6개의 과제(대형 2, 중형 2, 소형 2)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126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746억원을 지원 받게되어 전국대학에서 선정 건수와 지원 금액면에서 단연 최다를 기록, 전국 1위로 선정되는 경이사를 맞게 된 것이다.

모교는 이번 대규모 누리사업의 선정으로 경쟁력 제고와 우수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거점대학으로서의 전국적인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누리사업은 하나의 중산대학과 여러 협력대학, 산업체, 지자체가 참여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며 대학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체육학과 박열, 강신국 국제대회서 나란히 1, 2위 - 국제대학레슬링 오픈대회 -



박 열

강 신 국

자연대 체육학과 박열(4년) 군과 강신국(3년) 군이 지난 7월 3일 용인 레슬링 전용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5회 추계 대학 레슬링대회 겸 국제대학레슬링 오픈대회'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대학선수권대회 그레코로만형 66kg급에서 2위를 차지한 박열 군은 이 대회 대학부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에서 같은 과 후배인 강신국 군을 엮어치기 기술을 앞세워 2대 0으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특히 같은 체급에서 모교 선수끼리 결승에서 겨룬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경기 참가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대회에서 체육학과 김정배(2년) 군과 이경렬(3년) 군 또한 자유형 60kg급과 66kg급에서 각각 3위에 입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렸다.

우리대학서 금성의 태양면 통과 관측

모교 천문대와 천문우주학과가 지난 6월 8일 교내 43동 태양천문대에서 금성의 태양면 통과를 관측하는 데 성공하였다.

행성의 태양면 통과는 수성이나 금성 같은 내행성의 경우에 일어나는데, 금성의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면과 지구의 궤도면이 기울어져서 120년에 한번 금성의 태양면 통과가 일어났다가 8년 후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120년의 주기로 하여 일어난다. 그런데 120년 전에 일어난 금성의 태양면 통과는 우리나라에서 관측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관측은 우리나라에선 130년만에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육안 또는 사진관측만 가능하였던 반면 이번 금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은 망원경 같은 태양 전용망원경과 위성으로 관측할 수 있어서 큰 관심이 모아졌다.

학술진흥재단의 순수기초연구과제로 '태양전파 교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우주전파환경연구'의 일환으로 천문우주학과 김용기 교수가 지난 5월 태양전용망원경을 구입하여 이번 금성의 태양면 통과를 관측할 수 있었다.

당일은 우리나라 전역에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오는 곳도 있어서 관측이 어려웠으나 다행히 오후 6시 이후에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태양을 관측하여 수백여 개의 태양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 당시의 관측자료 및 공개행사 모습이 각종 언론과 뉴스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를 주관한 김 교수는 "이번에 관측은 국내에서 금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을 관측한 몇 안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진 1. H-α 망원경으로 촬영한 태양과 금성 (왼쪽 아래의 점)



사진 2. White-light 필터로 촬영한 태양과 금성 (왼쪽 중간의 점)

제2 수의학관 입주식 및 수훈비 제막식

수의과대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1시 신방웅 총장, 이영순 대한수의학회장, 학생, 동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 수의학관 입주식 및 수훈비(數勳碑)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입주식을 가진 제2수의학관은 34억원을 들여 연건평 1000여 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했고 교수연구실 10실, 실험실습실 14실, 강의실, 세미나실, 정독실 등을 갖추고 있어 이제 우리 수의과대학 시설도 타 대학과 견주어 뒤지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날 수의과대 동문들이 그 동안 실험에 사용되던 후 죽어간 동물들의 넋을 달래주기 위해 6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건립한 수훈비 제막식도 가졌는데 이 수훈비는 가로 2m, 세로 3.5m의 웅장한 자연석으로 만들어졌으며 동물들의 영혼을 달래는 제문을 새겨 넣었다.

수훈비 건립에 앞장선 권민상 수의학과 동문회장은 "다른 동물을 살리기 위해 임상실험으로 죽어간 동물의 넋을 달래주기 위해 수훈비를 세우게 되었다"며 "후배들이 더욱 열심히 연구해 주길 바라는 선배들의 바람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축구부, 대학축구선수권대회서 3위



모교 축구부가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린 제59회 함멜코리아배 대학 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3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국 46개 팀의 대학 축구 강호들이 모두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모교 축구팀은 예선에서 동국대를 1대0, 초당대를 3대2로 누르고 8강에 진출하여 전년도 대회 우승팀인 한양대와 전·후반 2대2, 연장전 0대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승리하여 4강에 진출하였다. 4강 전에서는 8강 전에서의 사투로 인한 체력저하로 울산대에 3대 1로 석패하여 3위에 입상하였으며, 대회



祭文

동물들의 영혼들이여
 품성은 각기 다르나 영혼은 같으리라.
 아까운 생명이지만
 의로운 죽음은 피하지 않음이니
 인류 보건증진에 대한
 그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도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숭고한 그 영혼을 위하여
 묵념하고 축원명복하오니
 동물들의 영혼들이여!
 밝은 세계로 나아가길 바라노라.



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기를 한 팀에게 주어지는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여 주위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모교 축구부는 지난 1968년에 창단하여 제7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내왔으며, 현재 체육학과 이규문 동문 교수의 지도하에 21명의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다.

사범대학 사도비 건립

사범대학에 사범대생들에게 어울리는 비(碑)가 세워져 사범대학뿐만 아니라, 학내에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사범대학은 지난 6월 21일, 사범대학 입구 잔디밭에서 신방웅 총장을 비롯하여 사범대학 교수·학생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도비(師道碑)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가로 220cm·세로 100cm인 이 사도비는 '쉽 없이 노력하는 거북'을 닮은 충남 웅천산 자연석(鳥石)으로, 가르침의 길을 가는 스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정신

을 상징한다. 이 비는 모교 출신인 국어교육과 김진식 교수가 충청남북도 및 대전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인 여천(如泉) 이종필(李鍾弼) 선생의 글씨를 받아 각자(刻字)하여 기증한 것으로, 「學不厭教不倦」이 비명(碑銘)으로 새겨졌다. 비명은 사범대학 교수들의 다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배움에 싫증내지 않고, 가르침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김 교수는 또한 이 비제막에 맞춰 주목(朱木)을 기념식수하였다. 배움은 사람에게 좌우명이 될 수 있는 사도비의 비명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孟子」〈公孫丑上篇〉에는 맹자와 제자 공손추의 대화가 들어 있다. 공손추가 맹자에게 “선생님은 이미 성인입니다.”라고 칭송하자, 맹자는 옛날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에게 “선생님은 이미 성인입니다.”라고 칭송한 일을 예로 들면서 자신이 성인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이 때 공자가 한 말이 「論語」〈述而篇〉의 學而不厭 教人不倦 인데 「孟子」〈公孫丑上篇〉에는 學不厭教不倦으로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두 구절은 「배움에 싫증내지 않고 가르침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로 그 뜻이 같다.

日然則夫子既聖矣乎 日惡 是何言也 昔者子貢問於孔子 曰夫子聖矣乎 孔子曰聖則吾不能 我學不厭而教不倦

也 子貢曰學不厭教不倦 仁也 仁且智 夫子既聖矣 夫聖孔子不居 是何言也 (공손추 가로되, “선생님께서 이미 성인이지요?” 맹자 가로되, “하, 그게 무슨 말인가? 옛날에 자공이 공자에게 “선생님께서 이미 성인이지요?”라고 여쭙자, 공자께서는 “성인이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배움에 싫증내지 않고, 또 가르침에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네. 자공이 “배움에 싫증내지 않음은 지혜로운이요, 가르침에 게을리하지 않음은 인자한입니다. 인지하시고 지혜로우시니 선생님께서 이미 성인입니다.”라고 말씀 드렸네. 공자께서도 성인으로 자처하지 않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노 무 상 식

임금채권보장제도

1. 개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당금”이라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지급사유

근로자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 사업장이 도산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도산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 도산' 과 지방노동관서의장이 결정하는 '사실상 도산' 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상 도산은 파산선고파산법, 화의개시의 결정(화의법), 정리절차개시의 결정(회사정리법)을 말하며, 사실상 도산은 지방노동관서장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또는 폐지과정에 있고 주된 업무시설에 압류, 가압류,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인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말소,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재산의 환가에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업주의 1월 이상 소재불명이여야 합니다.

3. 지급요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주로서 6월 이

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지급사유(기업의 도산)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4. 지급액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되며, 다만,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1월분의 임금 및 1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월정 상한액을 설정하여 최대 1,0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정 상한액

30세 미만 100만원, 30~40세 미만 155만원, 40~50세 미만 170만원, 50세 이상 145만원

5. 지급절차

체당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일(기업의 도산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지급요건에 대한 사실확인 신청과 함께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해당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노동관서의장은 근로복지공단에 관계서류를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성 기 정

· 법학박사 (83 학번)
· 공인노무사

기준경비율제도

“이파트 상가에서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장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 데 기준경비율제도란 무엇입니까?”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비용은 추계 경비인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정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는 종전과 같은 구조인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1억5천만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9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6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말하며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야 하며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있는 금액을 말하며, 인건비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등을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경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일정 기준경비율을 비용으로 공제를 하며 기준경비율은 국제정정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 비율을 참조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비율로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지출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여 억울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개교 53주년, 동북아시아 학문의 허브로 힘차게 도약하는 충북대학교

◎ 충북대학교가 좋은 53가지 이유

1. 20여만평의 드넓은 Campus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교정
2. 순수하고 정감 넘치는 학생들
3. 국립대학교로서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저렴한 등록금
4. 교육도시 청주의 거점대학으로서 지역적·학술적 위치가 높다.
5. 50여년 전통의 역사와 미래가 있는 대학교
6. 건물의 신축과 증축을 통해 교육 여건 시설이 편리하다.
7. 전자도서관과 ITIL존을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서관
8. NURI(누리)사업 과제 선정 전국 1위
9. 학술적 역량이 뛰어난 교수들이 많이 있다.
10. 국가고시·시험을 준비하는 학우들을 위한 고시원
11. 엘리베이터, 경사로 시설, 화장실 등 장애학우를 위한 편의시설
12. 교통이 편리하고 타 도시와의 지역적 연계성이 우수하다.
13. 전국에서 유일한 실력 있는 연초학과
14. 지역산업체와의 인턴십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
15. 자동차 동아리 '타키온' 전국대회 우승
16.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17. 지성이 넘치는 충북대신문사와 Chungbuk Times 기자가 있다.
18. 재학생의 반이 넘게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19. 설비가 잘 갖춰진 강의실(에어컨과 빔 프로젝터 설치)
20. 국제교육원이 있어 다양한 언어를 쉽고 편리하게 배울 수 있다.
21. 평생교육원에서는 지역민까지도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2. 테니스장,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의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다.
23. 충북대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재학생 할인)
24. 다양한 후생복지시설이 있다.(서점과 빵집, 여행사, 진료실 등)
25. 자동차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어 학내 학술·연구 분위기 조성
26.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자제한 상담을 해준다.
27. 최첨단 신학생카드 - 교통카드, 지불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다.
28. 학내 순환버스 운행
29. 개신예술회, 대동제 등 다양한 학생문화 행사가 많다.
30. 실행성수도이전으로 지역적·학술적 발전 가능성이 크다
31. 신학생회관과 카페테리아 등 학내 식당을 저렴하게 이용
32.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문화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중문지역
33. 숲속(연못)에서 친구들과 대학의 낭만을 즐길 수 있다.
34. 학내 곳곳에 펼쳐진 푸른 잔디밭
35. 잘 가꾸어진 나무와 풀꽃 사이로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
36. 평지로 이루어진 캠퍼스 - '산책하는 기분'
37. 현대식 대강당과 다양한 세미나실 시설을 갖춘 개신문화관
38. 학교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교직원
39.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모의취업행사는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
40. 학교주변에 저렴한 자취·하숙집이 많다.
41. 저렴한 비용의 학생기숙사, 특히 새로 지어진 여학생기숙사
42. 추억의 연애명소 - 몽마르뜨르 언덕, 플라타너스 길, 동아리 잔디밭
43.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조합
44. 유명한 문인들이 도종환 시인, 김병찬 아나운서, 홍경민 등등
45. 유명인들의 초정강화를 들을 수 있는 유니버스 교양강좌
46. 전국대학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RRC 연구논문 발표실적 전국 1위
47. IT협동연구센터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400억 지원금 확보
48. 충북대학교 응급의료센터 준공.
49. 본부 1층 종합서비스센터의 현대화로 대학생들이 편리하다.
50. 테마별 세계 문화 교육기행 지원 - 배낭여행경비 상당액 지원
51. IT 산화협력센터 구축으로 산화협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52. e-learning 센터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53. 학내에서 무선인터넷 사용가능 - 어디서나 잘 터진다.

◎ 2004년 상반기 주요실적 ◎

제2주기대학종합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우리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에서 4개 평가영역, 19개 평가부문에서 최우수 및 우수대학(원)으로 선정되었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교협에서 주관하여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얻게 하는 제도로 대학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연구실적 '전국 1위'

과학기술부가 각 대학에 설치를 지원한 지역협력연구센터(이하 RRC)의 연구성과 발표 결과 전국 대학 가운데 우리대학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과학재단이 발간한 '2003연구지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지난 98년 RRC로 선정돼 8년간 첨단연구기술개발연구센터에 37억 8600만원,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에 8억 8500만원 등 총 47억원을 지원받아 지원금 순위 부문에서 전국에서 3위에 불과했으나, 2002년 까지 국내 7백 24편, 국외 2백 86편 등 총 1천여편의 학술연구논문을 내놓으면서 전체 44개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실적을 내어 지원성과는 1위를 기록하였다.

지방대학신역량강화사업(NURI) 사업단 선정 전국 1위

우리대학은 지난 6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지방대학신역량강화사업(NURI 사업)"에 총 6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전국대학 가운데 최초로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대학은 이번 대규모 누리사업의 선정으로 경쟁력 제고와 우수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거점대학으로서의 전국적인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누리사업은 하나의 중심대학과 여러 협력대학, 산업체, 지자체가 참여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며 대학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우수센터' 선정

우리대학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내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가 지난 3월 17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03년도 전국대학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운영실적·계획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되었다.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는 기술력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벤처 창업자에게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술 및 경영기법을 지원해 벤처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와 기술 집약적 우수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IT협동연구센터 설립지원 '주관대학' 선정

우리대학이 7월 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발표한 IT협동연구센터 설립·지원사업에서 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제치고 대전·충청권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5년간 총 400억원의 사업수행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지역대학우수과학지원사업 '17과제' 선정

과학기술부가 2004년도 '지역대학우수과학지원사업' 신규과제로 95개 대학, 361개 과제를 선정 발표한 결과 우리대학이 17개 과제가 선정되어 전국 5위의 상우권 성적을 나타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과기부로부터 매년 2천 5백만원 이하의 연구비를 최장 3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전국사범대학평가 '우수대학'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2003년도 전국 사범대학평가 종합결과에서 '우수대학' 7위로 선정되었다. 전국 40개 사범대학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교육과정 및 수업 영역, 교수 및 학생 영역,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 등 3개 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대학은 교육과정 및 수업 영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휴대용진단치료기기 개발센터' 선정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04년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특성센터 연구지원프로그램"에 '휴대용 진단치료기기 개발센터'를 신청한 우리대학 의과대 의공학연구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 개발센터는 향후 6년간 모두 80여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유비쿼터스 개념의 휴대용 진단치료기기를 오는 2010년을 목표로 개발하는 국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연간 100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는 충북대학교 학생들

▲ 신입생 장학금

충북대학교는 우수한 인재들을 큰 인물로 양성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큰 뜻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는 성적 우수학생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연간 100억여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학생의 반 이상이 장학혜택을 받음으로써 학습의욕과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 용지를 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식 모집 합격자

지급대상	지급내역	비고
우수능 성적 반영 영역(3개영역)이 모두 1등급인 자로 전체 수석자	○재학연한중 등록금 면제 + 연간 360만원의 수확보조금 ○가속사 입사 희망시 우선권 부여 및 가속사비 제공 ○졸업후 해외 유학생 선발시 우선권 부여 12,000\$ 지원	○재학중 A ⁺ (360/450)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장애 등 결격 사유 발생시 자격이 중지됨. (단 성적미달로 인한 자격중지자가 다시 A ⁺ 이상으로 향상되었을때는 1회에 한하여 자격부여함)
우수능 성적 반영 영역(3개영역)이 모두 1등급인 자로 계열별 수석재인문, 자연 각 1명	○재학연한중 등록금 면제+연간 160만원의 수확보조금 ○가속사 입사 희망시 우선권 부여 및 가속사비 제공	
우수능 성적 반영 영역(3개영역)이 모두 1등급인 자로 단과대학 수석자	○재학연한중 등록금 면제+연간 80만원의 수확보조금	○우수신입생 수확보조금 및 기술사비 제공 중부대학교 발전기금 재단 장학금제원에서 별도 지급한다.
○기타 단과대 수석자	○2개년간 등록금 면제	
○모집단위별 성적 상위 3% 이내인 자	○1개년간 등록금 면제	
○모집단위별 성적 우수학생	○입학성적에 따라 입학학기에만 다음 구분에 의한 등록금 면제 A급: 전액 면제(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B급: 기성회비 면제 C급: 입학금+수업료 면제	○입학생의 30% 정도 장학금 수혜

◇ 수시 모집 합격자

지급대상	지급내역	비고
성적 우수학생	○입학성적에 따라 입학학기에만 다음 구분에 의한 등록금 면제 A급: 전액 면제(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B급: 기성회비 면제 C급: 입학금+수업료 면제	학생의 30% 정도 장학금 수혜

◇ 누리장학금

	IT-NUR사업단	나노기술(NT)기반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바이오 산업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바이오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e-business 및 IT국제화 지원인력 양성 사업	차세대 전력산업 기반기술 인력양성 사업단
지급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자연과학대학 -화학·생명과학부 -물리·천문우주·지구과학원 경과학부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재료·안전공학부 -화학공학부·환경공학부	자연과학대학 -화학·생명과학부(생화학전공·미생물학전공) 농과대학 -축산·농화·식품공학부(식품공학)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식품영양학과) 공과대학 -화학공학부·환경공학부(환경공학)	농과대학 -신림과학부 -식물의학·원예학과 -식물자원·연초학과 -축산·농화학·식품공학과 -축산학과·농화학(식품공학)과 -지원자 제외 -농공·기계공학과 -농업경제학과	경영대학, 국제경영·정보시스템학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지급대상	입학성적이 학부 상위 25% 이내인 자 중 상위 14명	모집단위별 성적우수학생	모집단위별 입학성적 우수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영역이 1~4등급 이내인 재능경제학과는 언어 외국어, 탐구영역 중 2개 영역이 1~3등급 이내	입학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중 경영정보학 지원자	입학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중 전기공학전공 지원자
지급내역	2005년 1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	2005년 1학기 등록금 전액면제	등록금 전액 면제	4학기 중 또는 전학년 등록금 전액 + 학기당 180~600만원 수확보조금	2005년 1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금전액
비고	-	본 사업단 참여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기계공학부, 재료공학부, 화학공학부 입학성의 5% 정도 장학금 수혜에산에 따라 변동 가능	모집단위별 10% 이내인 자 진학이 성적이 사업단 규정을 충족하면, 사업기간내 장학금 계속 지원함	재학중 평균 A ⁺ (360/450) 미만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장애 등의 결격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자격을 정지한다.		2005년은 BK21장학금(2006년 1학기부터 적용)

◇ 특별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내역	
	정시모집	수시모집
○ 국가유공 교육보호대상자	A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A급: 모집단위 입학성적 30% 이내 B급: 모집단위 입학성적 50% 이내 ※ 정원의 입학성은 제외	
○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국제적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인상한 자 중 본교 장학금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2개년간 등록금 면제(재학중 성적 B 이상)	
○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교에서 실시한 전국 고교생 과학탐구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자연계열에 입학된 자	○ 최우수 1명: 1개년간 등록금 전액면제(재학중 성적 B 이상) ○ 우수상 4명: 1학기 등록금 전액면제 ○ 장려상 8명: 입학하기 기성회비 면제	
○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교에서 실시한 전국고교생수학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자연계열에 입학된 자	○ 금 상 1명: 1개년간 등록금 전액면제(재학중 성적 B 이상) ○ 은 상 2명: 1학기 등록금 전액면제 ○ 동 상 5명: 입학하기 기성회비 면제	

◇ BK21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내역	등급	수혜율	비고
입학성적이 학부 상위 3% 이내인 자	1개학년 120만원의 수확보조금	A급	3%	장학금 지급기간은 BK사업 종료하기(2005학년도 2학기)까지임
입학성적이 학부 상위 20% 이내인 자	1개학기 등록금 면제	A급	17%	

◇ 외부장학금

김유래장학금 신인임장학금 개신장학금 최공성·전경숙장학금 임미숙장학금 임순득장학금 여석대 지장학금 우수신입생수확보조금 공공분부 정부위탁교육생 해군분부 학신무상장학금 학신이공계무상장학금(학부) 학신이공계무상장학금(대학원) 진천군장학회 청주소방서 증평소방서 무성회 단양장학회 충청북도문정장학회 재천소방서 하림장학재단 청풍문화재단 송파재단 아산사회복지장학재단 연암문화재단 월악장학문화재단 윤곡장학재단 은성장학회 일주문화재단 진로문화재단 정수장학회 조흥은행장학회 선보장학회 선암장학회 한국지도자육성장학회 해성문화재단 흥신장학재단 해운장학회 주신장학회 상성캐피탈 상덕장학회 한남학술재단 하정학술장학회 우덕재단 유한재단 주한미 국상공회외의 두울장학재단 간송문화재단 한국통신장학회 한국유리유품회 현명(RVNARHD)대 한진기협회 미원장학회 남강장학회 대신농촌문화재단 관정이중재단 유인문화재단 신학협동재단 심일문화재단

동문단상 **고교 등급제 논란을 보며**



김 내 수

· 축산학과졸 (68학번)
· 농과대학장

천하의 빼어난 인재를 모아 교육하는 것(得天下英才而教育之)은 군자에게 천하의 왕 노릇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라고 이미 맹자께서도 같파하신 바 있으니,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을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은 누구라도 탓할 바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라는 교육부와 사회의 요구를 대학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있는 것 같다. 내신 성적을 반영하라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에 머무른다면 고교 등급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나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내신등급을 입시에 반영하는 근본 취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고교의 서열화 해지는 등급제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시골에 있는 고교의 1등과 소위 잘나간다는 강남의 고교 1등이 같을 수 있느냐며 깃대를 울

린다. 그렇지만 이는 절대로 깃대를 울릴 일이 아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것은 바로 시골에 있는 고교의 1등과 소위 잘나간다는 강남의 고교 1등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물체에서 발현된 능력이란 어느 것이나 유전자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것이 없고, 성적이라는 것도 유전학적 의미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학교 성적과 같이 수많은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것을 양적 형질이라 하고, 이러한 양적 형질을 외형적으로 측정할 값을 표현형 값이라 한다. 그런데 표현형 값이란 유전적 능력과 환경작용의 함수로 나타나며, 이는 더하기 함수로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표현형 값이란 유전능력값과 환경에 의한 값의 합이 되는 것이다.

예가 좀 친박하기는 하나 가축의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여기 젓소가 있다. A목장의 평균 우유 생산량은 7,000kg이고, 이 중 1등으로 우유를 많이 생산한 젓소의 유량은 10,000kg이었으며, B목장의 평균 우유 생산량은 5,000kg인데 1등 한 젓소의 우유 생산량은 9,500kg이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런데 10,000kg을 생산한 목장의 젓소들은 아주 사양 관리를 잘하는 목장에서 생산한 결과이고, B목장은 관리가 형편없는 가운데서 생산한 것이라면, A목장의 10,000kg을 생산한 젓소의 유전 능력이

B목장의 9,500kg을 생산한 젓소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하기 때문에 젓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외견상의 표현형 값에 의존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조건이 같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를 통계학적 기법으로 보정하여 젓소의 능력 순위를 정하고 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하려는 것은 그 학생의 현재의 표현된 능력뿐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고려해보겠다는 것이다. 교육여건과 자라는 환경이 다른 데 따른 차이를 감안하여 그들의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가정교사를 두고 오직 학업에만 전념한 학생과, 시골에서 쇠뿔을 베는 등 집안일을 도우며 공부한 학생이 시험을 본다면 전자가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 학생이 반드시 잠재 능력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골과 도회지 학교의 교육적 여건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시골학생이 도회지 학생보다 시험 성적이 나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잠재적 능력의 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이란 모름지기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현재의 필멸이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여 사회의 유용한 일꾼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하기에 현재 좀 모자란 듯 보이지만 잠재성이 있다면 그를 잘 가다듬어 한 유용한 인간으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이 담당하여

야 할 몫인 것이다.

현재의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그 학생 본인의 능력뿐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합쳐진 결과이고 이를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고 싶지 않다는 극히 이기적 발상의 발로에 불과하다. 교육기관이라면 모름지기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흠 속에 묻혀 있는 옥을 가려내어 값진 보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지, 소원도에 있는 기성의 보석을 비싼 값에 팔려는 장사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등학교 등급 매기고, 가능하면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을 배려하려는 노력을 교육기관이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평등을 향해 갈수 없을 것이며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교를 등급 매기는 쉬운 일보다 전국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동일한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열쇠

도 중환

· 국어교육과졸 (73학번) · 시인

세상의 문이나를 향해 다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열어보면 닫혀 있는 문이 참 많다
방문과 대문만 그런 게 아니다
자주 만나면서도 외면하며 지나가는 얼굴들
소리 없이 내 이름을 밀어내는 이데올로그들
편견으로 가득한 완고한 집들이 그러하다
등뒤에다 야유와 멸시의 언어를
소금처럼 뿌리는 이도 있다
그들의 문을 열 만능 열쇠가 내게는 없다
이 세상 많은 이들처럼 나도
그저 평범한 몇 개의 열쇠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두드리는 일을 멈추진 않을 것이다
사는 동안 내내 열리지 않던 문이
나를 향해 열리는 날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겠는가 문이 천천히 열리는
그 작은 삐걱임과 빛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소리
희망의 소리도 그와 같으리니



충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에 모든 동문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어느덧 풍성한 가을의 넉넉함을 만끽하기도 전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더욱더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하며 늘 모교와 동문회를 사랑하는 개신 가족 여러분과 함께 송년의 밤을 마련하였사오니 꼭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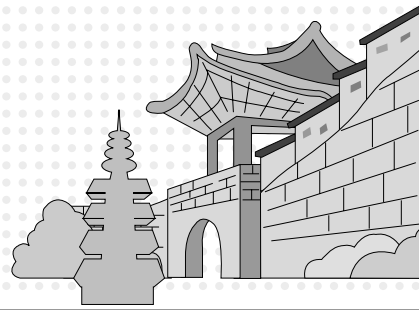
▶ 일 시 : 2004. 12. 29. (수) 18:30

▶ 장 소 :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2층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장 김 주 섭

동문단상

천년 고도 경주가 주는 즐거움



전 제 상

· 교육학과출 (82학번)
· 경주대학교 교수

천년 고도 경주는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의 숨결이 아
닌 곳이 없고, 온갖 설화가 가득찬 보물 창고이다. 이곳
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면서부터 날마다 삶의 즐
거움이 애뜻하게 자라고 있다. 경주 나들이란 말만 들어
도 왠지 모를 감흥이 솟아나는데 이곳에서 생활할 줄이
야 누가 알았겠는가? 천년 고도 경주의 분위기를 잠들어
있던 나의 육감(六感)을 흔들어 깨우기에 충분하다. 육
감이 자극받으면서 이곳에서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날
마다 눈과 귀, 손과 입, 코와 마음으로 느끼는 천년고도
의 역사적 향기는 희색빛 대도시문명에서는 도저히 느
낄 수 없는 묘한 매력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천년 고
도의 환상적 분위기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몇 가지 즐
거움의 단상을 감사의 마음으로 적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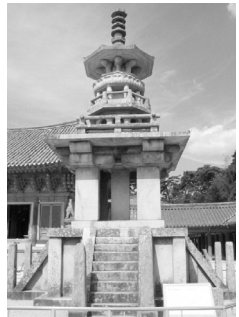
교과서에서나 만났던 계림(鷄林)은 김알지의 탄생설화
가 깃들여있는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숲이다.
천년 세월의 풍상만흔이나 아름답고 고목들이 정령(精
靈)처럼 서있는 모습에서 천년 설화로 자연스레 빠져
들게 한다. 그곳을 걷고 있노라면 황금빛 께깍이 걸려있
는 나뭇가지에서 커다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육감이 열려있다면 천년 역사의
첫소리가 어떠한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계림 숲
속을 가로지르면 둥그런 왕릉들과 그 뒤로 이어지는 첨
성대 등이 펼쳐지는데, 이것들은 중생들의 피로한 눈과
찌든 마음을 한꺼번에 씻어주는 카타르시스 역할을 하
고 있다. 어느 때인가 붉은 저녁 노을에 여러 아이들이
왕릉 위에서 천진스럽게 장난치는 풍경은 입가에 얽은
미소를 자아내는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왕릉들을 볼 때
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나의 뿌리는 무엇
인가에 대한 암묵적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가
슴마저 설레이곤 한다. 왕릉 속의 주인들은
신라, 고려, 조선
을 거

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
어찌보면 우리 민족의 원형이요, 정신적 고향이기도 하
다. 머리가 복잡하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이곳에 들
러 천년 세월의 무게를 느끼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즐거움에 갈 길마져있을 때가 많다.

고개를 들어 곳곳에 펼쳐진 소나무 군락을 바라보는
재미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신라시대 임금님 사냥터인
황성공원 근처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후로 습관적으
로 이곳을 찾는 버릇이 생겨났다. 도시 한가운데 넓은
평지 위에 펼쳐진 소나무 군락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요, 삶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
다. 이곳을 걸을 때 소나무 군락이 자아내는 풍경과 향
기는 편안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누구에게나
긴장과 스트레스를 떨치게 한다. 흑갈색과 적갈색 소나
무의 줄기들이 한 곳에 어울리고 엉키면서 서로의 안녕
을 위해 감싸면서 사계절의 교향곡을 감미롭게 연주하
는 듯하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친 나에게는 하
늘과 땅의 기운을 이어주는 소나무 군락에 몸을 맡기면
서 더할 나위없는 평안을 얻고 있다. 아침 햇살과 저녁
달빛이 비추는 소나무 군락에서 한결음씩 발을 내딛다
보면 어느새 천년 신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
져들어 시간가는 줄 모르게 된다. 이곳을 걷는 이들이
하나같이 밝은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은 신령들의 돌봄이
아닌가 싶다.

경주관문으로부터 펼쳐진 넓은 평지 위에 솟아있는 커
다란 능들을 접할 때마다 경주의 묘한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이곳에 온 이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왕릉들에 매
료되어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까이 하고자 애쓰고 있다.
왕릉들은 한자 무덤이 아니라 우리 선조의 삶의 터전이
요, 역사의 숨결을 전해주는 보물이 되고 있다. 왕릉들
은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새로운 색깔의 옷으로 갈아
입으면서 우리를 천오백년 전 시대로 빠져들게끔 유혹
하고 있다. 누군가 경주 경치의 백미가 있는
데 그것을 감상해야 경주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름달 왕릉 꼭대기에
올라 경주 전체를 관
망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 처음에는 이
게 무슨 소리인
가 싶었다.
그렇게

커다란 능 꼭대기에 어찌
오를 것이며, 무엇이 그리
대단하기에 그렇게 강조
하느냐 싶었다. 이러한 나
의 생각은 보름달 능 꼭대
기에 오를 후 경주 전체가
눈 앞에 펼쳐진 광경을 접
하고서야, 아! 이런 모습
때문이었구나 하는 탄성
이 저절로 나오는 걸 경험
하면서 바뀌었다. 보름달
환히 비추는 왕릉 꼭대기에서 경주의 탁 트인 광경을
바라보노라면 왕릉 아래 평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
로운 분위기 때문에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느껴졌다. 지
금과는 달리 천년 전 광활한 대지 위에 솟아오른 왕릉
의 위용은 대단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후로 왕
릉에 대한 나의 경의심은 더욱 커졌음은 두말할 필요
가 없다.



토함산 동쪽 동해 앞바다에 펼쳐진 문무대왕 대왕암은
무릇 임금이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어찌해야 하는가를 보
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한반도 삼국을 최초로 통일
한 왕으로서 죽음에 이르러서도 백성의 안위를 위해 자
신의 권위 따위를 무시하고, 이를 몸소 실천한 위대한
성군이였다. 문무대왕에 대한 많은 일화는 차치하더라도,
삼국통일의 왕으로서 그 당시 위상은 정말로 엄청났
을 것이다. 그가 죽은 후에 다른 왕들처럼 능을 만들었
다면 능의 높이나 크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화려함은 우
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죽음에 임박하여 '옛날 민사를 호령하던 영웅도 끝내는
한 무더기 흙더미가 되고 만다. 풀 베고 소먹이는 아동
들이 그 위에서 노래하고 여우와 토끼가 그 옆에서 굴
을 팔 것이니, 분묘를 치장하지 말고 내가 죽은 후 왕궁
고문 밖 뜰에서 서역의 법사대로 화장하라고 의연하게
유언하였고, 그의 유해는 동해 감포 봉길리 앞바다로 향
하여 동해의 푸른 물결 속 대왕암에 영원히 잠들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조국의 거친 물결을 잠재우고 그 기
상을 드높이고자 했던 문무대왕의 위대함은 그의 죽음
후에 생겨날 커다란 왕릉 건축에 대한 백성들의 고충을
십분 헤아린 인간애의 발로라고 생각하면 그의 숭고한
이상과 정신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이러한 정신 때문
인지 수증대왕앞 해변은 언제가 많은 사람들로 넘쳐
난다. 지금은 중생들의 개인적 안녕을 기원하는 무인(巫
人)들의 기도처가 되고 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도 감포를 동해바다의 기운을 껴안은 대왕
암은 거대한 바위 알처럼 솟아올라 태양처럼 빛나고 있
다. 조만간 동해바다의 문무대왕암으로 발걸음을 옮겨
그 분의 높은 기상을 마음에 새기는 여유로움을 찾는
것도 경주만이 주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다. 이곳에 살면
서 천년 고도 경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 물리학과 (4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폰. Lists 4 members of the Physics Department.

▶ 화학과 (5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폰. Lists 5 members of the Chemistry Department.

▶ 생물학과 (4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폰. Lists 4 members of the Biology Department.

▶ 미생물학과 (2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폰. Lists 2 members of the Microbiology Department.

▶ 천문우주학과 (1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폰. Lists 1 member of the Astronomy and Space Science Department.

▶ 경영학과 (10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폰. Lists 10 members of the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 국제경영학과 (8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폰. Lists 8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 회계학과 (7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폰. Lists 7 members of the Accounting Department.

▶ 화학공학과 (17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폰. Lists 17 members of the Chemical Engineering Department.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폰. Lists 25 members of various departments.

▶ 전기공학과 (9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폰. Lists 9 members of the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

▶ 기계공학과 (2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폰. Lists 2 members of the Mechanical Engineering Department.

▶ 토목공학과 (48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폰. Lists 48 members of the Civil Engineering Department.

성명	학번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 폰
김영호	69	사직1동 237-1번지 충북비전 본실유원	수곡동 대림2가 203동 207호	277-2114	283-2153	019-424-2153
김동훈	74	북문로3가 38-14농협 충북지역본부	개산동 한대A 103동 1405호	229-9740	264-4756	016-419-4100
연규일	75	우암동 378-7청주농협 상부	울당동 덕성A 나동 303호	256-5569	211-5980	011-9846-5680
김정진	82	서문동 121-117가라후수		256-2820		011-491-3853

▶ 농생물학과 (3명)

성명	학번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 폰
김두호	79	농업생물학과농업기생충학과	세시원구(충주)농업대학34동1호	299-2500	299-8766	019-335-8766
황대규	81	충주시 가두동 54-3(주)농협 상부	충주시인수동 일광A 101동 806호	852-6095	842-5789	011-9782-8952
이병규	87	신봉동 241-2대우상용차 대표	모충동 두산한솔A 101동 601호	277-6122	262-4188	011-463-4188

▶ 농업기계공학과 (4명)

성명	학번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 폰
한충수	78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기계공학과 교수	신봉동 백조A 103동 508호	261-2580	271-4413	
김용일	79	금천동 333 대우자동차 경일영업소장	용양동 건영A 107동 1404호	293-8200	294-3546	011-461-7068
박연규	79	분위동 89도청 농협중앙소장	분양동 대우한솔A 804-906	222-4513	295-6454	018-414-6454
홍종선	81	문화동 688번지 충북농업진흥청 지도과장	가평동덕일한솔A 101동 808호	256-2537	235-8894	011-486-3458

▶ 농화학 (19명)

성명	학번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 폰
김신혜	62		울당동 삼성A 203동 208호		211-5369	011-9059-5369
김재정	62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 과 교수	개산동 삼익A 107동 701호	261-2563	265-5630	
이희봉	62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식물공학과 교수	분양동 우성A 102동 507호	261-2569	267-1426	
정오재	62	인원시 서구 내동 22-146 미성택대너 대표	서울시 용산구 원호로 41번지 1동 603호	583-2541	712-9175	011-262-5636
김은환	63	대천시 대곡동 244번지 대천시농협	대천시 중구 신봉동 159-32번지	934-9107	582-1416	
윤인현	63	우암동 836-6하 나빌 7층		225-6655		011-9813-3355
정상길	64	운천동 1371 사면지과 원장	분양동 1219한대우A 804동 802호	264-5811	295-5550	011-9841-5811
조재민	65	충주시 이원면 충주대학교 식물공학과 교수	내당동 422번지 신대원2동 101호	841-5245	213-6242	
구병희	66	금천동 113-6농협 금천동지소사무	충북모은군 산내면 봉계리 118-2번지	254-8274		
신경후	66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1내수중앙교장	북문로2가 95-2장기A 북동 105호	214-9713	256-6526	016-404-6526
홍순달	69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농화학 과 교수	금천동한대A 109동 120호	261-2564	256-7824	
정재원	72	충주시 이원면 충주대학교 식물공학과 교수		841-5248		011-462-5714
황동택	73	충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교수	울당동 한대A 103동 1003호	733-6851	212-9872	
박찬규	75	송정동 1-8한곡내물대주생산부장	탐양동 한대A 104동 805호	279-7265	222-2713	
김보규	76	청원군 오성면 평리333 농협농업기술원 원장	탐양동 44 한대A 107동 806호	219-2673	257-7805	
김정수	77	하이테크(주) 원주지점장	서울시 구로구 신봉동 355 우성A 302호	734-5111	844-9749	011-277-3550
이병화	77	송정동 140-1 송정부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양동 204-10번지	220-5522	262-8735	
이만진	78	회성군 장남면 보흥리 1(가)기린사동	수원시 광진구 신원A 102동 801호	350-1350	234-1379	017-205-1379
김학용	78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생물학과 교수	사당동 283 신대A 3동 208호	261-2307	271-4229	016-433-4229

▶ 농공학과 (19명)

성명	학번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 폰
박기갑	63	수동 133 주성중학교 교장	수동 385-8번지	257-7383	223-0807	019-365-0607
송재원	64	(주)강원기술개발공사 대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504번지A 23동 140호	525-9363	408-2902	011-254-6377
강희종	65	서울시 강남구 기술국 기술과 과장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동 우성A 3동 101호	721-9336	575-9977	
최규근	66	분위동 89 농협도청 수질관리과	개산동 삼익A 204동 1006호	220-3681	274-9112	011-467-3912
최남규	66	가평동 1507 효성A 104동 903호	가평동 1507 효성A 104동 903호	251-3471	233-3114	019-433-3114
신정수	67	수곡동 658 동림건설 기술지원부	가평동 효성A 104동 602호	292-4455	231-2454	016-464-4472
이원준	68	사직2동 38 충북지방방위청 전산실장	분양동 687번지	270-1271	264-7227	
오인근	69	개산동 3499 충북개발공사 개발과 과장	수곡동 세원한솔A 101동 403호	220-5535	268-8162	
조성진	69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기생충학과 교수	분양동 594번지	261-2584	262-8326	
이주영	70	가평동 1503-1 상산건설 사장	신봉동 159 삼성A 3동 502호	234-2131	264-6945	011-490-8995
이영구	71	회성시 320농협(주)분위시갈밀기갈2부장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우성A 5동 130호	420-2259	412-2608	016-353-2608
강석은	72	분양동 888 사정건설(주)생산부이사	내당동 신대A 5동 703호	265-6501	213-5263	
자민현	72	분양동 1406 농업기생충조사실장부 과장	분양동 우성A 103동 308호	290-3362	272-1649	011-9846-1649
김호백	74	대천시 동구 용진동 173-1 국보관리청	대천시 문진동 르온카 A 108동 1302호	670-3325	487-0521	011-451-4001
조광환	75	광주군 신태인면 평리2교에 농업기생충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동 1동 305호	290-1901	224-0262	019-355-0262
박상근	76	내당동 406-8번지 강원철강주주대표이사	가평동 백산A 103동 905호	216-2061	231-5937	011-467-2051
민홍기	78	회성시 407번지 강원개발공사 경영지원부팀장	서울시 동대문구 대방동 391-3 4번지	420-1939	3380-7146	016-273-4519
정광희	79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기생충학과 교수	세시원구(충주)농업대학A 101동 101호	3149-7925	817-2066	011-201-6556
염동각	80	분양동 1402번지 농업기생충조사실장	분양동 주공A 600동 1301호	290-3352	295-0873	011-463-0864

▶ 농업경제학과 (10명)

성명	학번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 폰
김은택	73	충남연기면 서면농협 542번지 분임농장		867-4068		011-867-4068
박종욱	73	서울시 송파구 가계동 600 서원정주점리부	서울시 영구구 문정동 29 한대A 106동 140호	407-2121	646-7824	011-9752-9230
이재봉	75	괴산군 단오면 보리리 농협 상부	사당동 신봉동 A 6동 1101호	838-8400	213-1373	016-558-4100
류영철	76	북문로3가 38-14 농협 충북지역본부 겸이사	가평동 1477-3번지	252-6231	234-7171	011-478-7174
이재환	78	탐양동 154-3 농협농부지부	가평동 동부A 105동 1402호	253-4207	232-5047	016-409-1199

성명	학번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 폰
박상규	79	수곡동 85-30 법무사 박상규 사무소	운천동 577 삼성A 103동 603호	288-7776	272-8017	011-405-8017
박종관	79	운천동 1244번지 일진인전공사 대표	충청 청원군 오성면 탐리 303번지	263-9667	250-9255	011-469-9255
윤병민	80	수원시 은평구 농협중앙회농업진흥청분청	분양동 서문로(대우) 우성A 23동 80호	299-9500	781-2329	011-708-9160
송태호	81	사당동 236-12 송원리한솔		264-2672		011-9841-2021
민관기	84	북문로3가 38-14농협지역본부 농민복지	금천동 한대A 101동 710호	229-1667	258-4180	011-459-4180

▶ 식품공학과(3명)

성명	학번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 폰
김병문	82		청주광역시 동구 대우한솔 A 101동 101호		571-5716	018-406-6574
박은식	83	울당동 1180 삼성가 304호 리플라이대표	울당동 한솔A 101동 507호		212-0509	011-459-0509
조성룡	84	운천동 540-12 정원리한솔	금천동 96-34번지		265-6414	252-8855

▶ 법과대학 (11명)

성명	학번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 폰
김신열	80	영동동 구인도동과 4차법무사관 경희경찰서	서초구 잠원동 동서A 106동 601호	371-7114	377-3080	011-799-1953
이범익	80	사직1동 560-29번지 농부현안위원장		273-4206		
윤정훈	80	수곡동 85-30(주)우성회관303호 운영책임자		298-0086		011-482-4440
최성환	80	남대문로 55(주)우성회관303호 운영책임자	관악구 봉천동99-5도림빌 201호	792-0136	877-2366	016-402-7383
김학수	81	행동동 1 하나신대(주)OO청주지점장		270-2241		011-348-8871
김경희	83	역삼동 646(주)신대(주)OO청주지점장	충주시 이원면 18-38번지	209-7500		011-9845-9871
성기정	83	개천동 534(주)신대(주)OO청주지점장	개산동 두산한솔 A 202동 103호	266-8822	275-0419	011-781-1253
조환범	83	대천시 문진동 1249(주)신대(주)OO청주지점장		488-5211		016-210-4505
이은규	85	수곡동 83-30 이은규법무사 사무소	강내면 탐리동 유원시A 102동 103호	285-5200	275-2000	011-9841-7329
김한민	89	가평동 171-58번지 12층갈밀기부서	가평동 171-58번지 105호	299-7027		016-280-6954
신대희	94	수곡동 83-30번지 청주지방법원 판사				

▶ 교육학과 (5명)

성명	학번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 폰
이범용	79	충주시 분당동 충주교육청보육교육과 교수	인원시 남구 관동동 동부A 110동 808호	850-1614	422-7697	017-345-7697
김인호	80	진천군, 읍, 송서리 462번지 진천중학교	분양동 1984번지	533-2321	262-7498	011-492-7498
김재훈	81	울당동 534 청주여자고등학교	울당동 삼성A 103동 703호	211-4926	212-2503	016-9296-2503
곽성대	82	진천군 평해면 평해원고등학교	탐양동 44번지 한대A 102동 103호	533-2281	222-8222	
신성철	84	충주시 회남동 충주중학교	충주시 인수동 주공단지A 42동 906호	848-3367	848-0870	011-9408-0870

▶ 국어교육과 (14명)

성명	학번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 폰
서병기	72	괴산군 장연면 장연중학교장		832-6553	253-6626	019-403-8626
임기원	72	신봉동 4-1 충북도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북대2동 영서A 1동 303호	291-7723	234-7848	016-424-7848
한종규	72	충주시 이원면 충주대학교 국어과 교수	충주시 인수동 유원A 나동 708호	841-5442	844-0150	016-424-8837
노재일	73	보은군, 읍, 보은여자고등학교교장	울당동 동서A 1동 608호	542-9979	211-4816	011-459-4816
도종환	73		개산동 한대A 102동 201호		271-1264	011-230-0354
이병복	73	수곡동 1003 수곡중학교 교장	개산동 삼익A 103동 1401호	291-0232	263-0154	016-463-0154
김승환	74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가평동 건영A 106동 1205호	261-2668	294-5010	
김진식	74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용양동 건영A 102동 1503호	261-2664	294-1976	019-294-1976
김기탁	76	괴산군, 읍, 괴산교육청 장학사	울당동 한대A 403동 202호	833-0312	211-0814	011-490-8812
박재승	76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가평동 효성A 105동 1204호	261-2665	233-9682	019-465-1603
신한철	76	수곡 180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	남양동 효성A 202동 303호	229-1806		011-9858-0970
정효규	77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수원시 권선구 대우A 101동 303호	261-2101	297-1354	016-529-2310
김재정	78	청원군 내수읍 주성리분리농협과 교수	용양동 동산빌리지 201동 304호	210-8300	294-9910	019-461-9910
지은영	79	청원군 부용면 부강중학교 교장	가평동 백산A 104동 301호	275-4091	231-8300	011-458-8530

▶ 영어교육과 (14명)

성명	학번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핸드 폰
변상근	70	진천군 백곡면 백곡중학교 교장	사당동 신봉동 A 5동 1203호	532-5381	211-7110	016-9466-7110
강상무	71	영동군 영동중학교교장	영동동 신대한솔A 1동 1101호	742-6390	259-7643	011-9424-7643
김정남	72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북대2동 188번지	261-2125	262-2968	
최광희	72	울당동 울당중학교 교장	가평동 백산 A 102동 501호	213-0038	231-4885	016-578-4885
이기필	73	신봉동 4-1 충북도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가평동 대림 A 104동 120			

▶ 역사교육과 (7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앤드 폰. Lists 7 faculty members in the History Education Department.

▶ 지리교육과 (2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앤드 폰. Lists 2 faculty members in the Geography Education Department.

▶ 사회교육과 (9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앤드 폰. Lists 9 faculty members in the Social Education Department.

▶ 국민윤리교육과 (3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앤드 폰. Lists 3 faculty members in the National Ethics Education Department.

▶ 수학교육과 (12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앤드 폰. Lists 12 faculty members in the Mathematics Education Department.

▶ 수의과대학 (2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앤드 폰. Lists 2 faculty members in the 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 과학교육과 (15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앤드 폰. Lists 15 faculty members in the Science Education Department.

▶ 미술교육과 (9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앤드 폰. Lists 9 faculty members in the Art Education Department.

▶ 체육교육과 (8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앤드 폰. Lists 8 faculty members in the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 가정교육과 (9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앤드 폰. Lists 9 faculty members in the Home Economics Department.

▶ 약학과 (24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앤드 폰. Lists 24 faculty members in the Department of Pharmacy.

▶ 의과대학 (5명)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학과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직장(☎), 자택(☎), 앤드 폰. Lists 5 faculty members in the School of Medicine.

청주의 자존심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웰빙 문화를 이끌어가는 행복한 공간... 선프라자 컨벤션센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동창회, 약혼식, 결혼식, 돌, 백일, 회갑연 등 모임



중국식퓨전레스토랑 (티양)

귀족적인 분위기의 우아한 실내공간에서 일류 요리사가 직접 퓨전 중국음식을 준비하여 고객님들께 최대의 만족을 드립니다.



대연회장 (슬레이유)

특수조명, 샹드리에 조명이 특징이며 창립기념식, 신제품발표회, 피로연, 회갑연, 이벤트 등 각종 모임에 적합하며 350명이상 수용할 수 있습니다.



중연회장 (다이아몬드)

엔틱풍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구조물은 결혼식, 가족연, 일반연 등이 가능하며 황홀한 샹드리에 불빛, 디지털 특수조명으로 품격높은 연출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레스토랑/뷔페 (엘리오스)

특수조명과 최신음향을 갖춘 무대에서 라이브공연 및 이벤트를 펼칠 수 있는 공간... 인원에 관계없이 맞춤형 각종행사를 예약받습니다.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위치: 청주 용암동 LG마트에서
김수녕양궁장 방향 500m
예약문의: TEL.043-297-6700



(주)충북소주 대표이사 장덕수
충북대학교 농기계공학과 '79학번



(주)충북소주
<http://www.cbsaju.co.kr>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충북의 소주

시원 소주만이 충북의 자랑입니다!



초정리 맑은 물로 빚은 부드럽고 깨끗한 소주

충북 청원군 내수읍 우산리 503-7 소비자상담 : 080-211-5111